

# 自營農 노인촌락 입주자의 생활공간 욕구

## Living Space Needs of Rural Elderly Residents in a Farming Retirement Community

이인수\* / Lee, In-Soo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needs for living space of residents in a farming retirement community. In this study, a survey was performed about desire for living space and aesthetic aspects of housing environme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Most residents desire permanently formed dwelling unit rather than assembled temporary structure so that they feel comfortable in noise-prevented space.

2. The retirement community residents do not desperately prefer individually separated room because open space provides better observsation function for emergencies.

3. They hope their dwelling units are grouped like regular neighborhood, and the units have traditional designs such as conventional kitchen and sink, and wooden floor.

Finally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Korean rural retirement community be established with maximum use of conventional dwelling resources so that the residents benefit old fashioned living tradition even in the recently moved retirement society.

**키워드** : 자영농장형, 안전성지침, 시각적 매력성, 조립구조, 개방형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농업을 평생생업으로 영위해온 한국 농촌노인들의 자연스런 이주에 의해 형성된 소규모 노인촌락에서 지속적으로 영농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입주자의 생활공간이용과 관련된 욕구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다. UN에서 정한 노동능력기준으로는 65세를 정년퇴직으로 규정하지만 선진국은 물론 한국의 경우 교직자의 대부분 직장은 55세전후를 정년퇴직으로 정하므로 50대후반부터 60세초반 연령층 많은 사람이 사회적 역할 상실과 동료와의 사회접촉을 상실한 "사회적노화(social aging)"의 단계에 직면한다.<sup>1)</sup>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화사회를 가속화하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조기퇴직은 중년기 사람들의 사회적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러한 두가지 현상이 빚어내는 또다른 사회적 현상이 바로 노인들의 자연스런 群集에 의한 노인촌락 (Retirement Community) 형성<sup>2)</sup>이라고 하겠다.

노인촌락이란 50대이후 사람들이 은화하고 안전한 지형을 갖춘

지역에 자연스럽게 이주,군락을 형성하여 말 그대로 자녀를 독립시키고 왕성한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만의 독특한 거주지역을 형성한 장소를 지칭하는바, 미국 Florida주의 Tampa, Arizona주의 Suncity등 지역인구중 80%이상이 55세이상인 경우의 촌락을 예로 들수있다.<sup>3)</sup> 한국에 노인집합주거가 발생하게된 시기는 90년대초부터 노인복지법규상 유료노인시설의 허가를 명문화하면서부터인데<sup>3)</sup> 연구보고된 노인촌락의 유형은 도심형, 도시근교형, 그리고 전원형을 들수있는데 이는 대부분 부유층 도시노인이 고소득자영업(예:의사, 변호사, 기업가등)을 지속하며 휴양을위해, 혹은 정서적 안정을위한 주말농장식 취미생활을 위해 입소하는 경우다.

본 연구대상이된 노인촌락은 위에 열거한 사례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의 노인집합주거로서, 휴양이나 취미와는 무관하며 농업이 절대적 생계수단인 노인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노인들과 협동영농을 위해 운영하는 자영농장형 촌락이다. 농촌노인의 자연스러운 이주에 의해 발생한 소규모 집단농장 생활상을 연

1) 신한종합연구소, 21세기 실버산업의 전망, 성림문화사, 1991, pp.33-34

2)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pp.94-96

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6, 1994

\* 정회원,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조교수, 가정복지학 박사

구하는 것은 선행연구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까지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가 도시출신 부유층 노인을 위한 휴양 시설 형태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문화 시설 혜택이 결여된 환경속에서 육체노동인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다. 특히 주변 자녀와의 접촉이 용이한 도시노인과는 달리 자녀를 모두 원거리 도시로 출가시키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한 뒤 과거의 농업을 지속하면서 경험하는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 즉 新주거지에서의 舊행위 영위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조사하는 것은 이제까지 노인촌락에 입주한 노인들에 대한 조사, 즉 近원적 환경으로의 이동 후 노후재정으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안정된 심리상태에서의 생활공간욕구와 차별화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노인에 비해 비교적 저하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는 농촌노인의 집단농장 실내 디자인에 있어 첨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공간, 입주자의 정서와 감 정상태를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디자인요인을 파악하여 중류층 농촌노인용 집합주거시설의 실내디자인 지침을 마련하는 초보적인 것이라 하겠다.

## 1.2. 연구의 목적 및 활용도

본 연구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과 갈산면 경계지역에서 집단이주에 의해 자연스런 농장을 이루어 독립적인 자영농업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입주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침실, 화장실, 거실, 옥외공간 등 주요 생활공간을 관찰하고 그곳에 영구입주하여 생활하는 입주자의 생활공간 이용욕구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한국에 보급될 농촌노인형 노인촌락의 디자인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로서, 연구에서 언급되는 각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연농 노인촌락이라 함은 평생 농업을 주요 생업으로 하며 살아온 60세 이후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주하여 20명 이상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독립적으로 자영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정의를 내린다.

둘째, 생활공간이란 집단농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행위 중 주거와 관련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정의를 내리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출입구, 가사용 작업공간, 생활도구 및 식품의 보관공간을 지칭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욕구란 생활공간의 사용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과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원하는 사항 등 2가지 방향의 知覺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의 분석 영역별 목적과 활용도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첫째, 본 연구는 평생 농업에 종사해오던 노인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입주한 자연농 노인촌락내 주요 생활공간이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노인 집합주거시설 설립시 권장되는 안전성 기준 중

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몇 가지 사항과 일치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기본적인 권장사항과 실제공간구성의 차이점에 대해 입주자가 가지는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증은 인체공학적 실험에서 입증된 안전성 기준과 실제 생활환경과의 격차에 대한 입주자의 민감성을 파악하여, 주거공간 디자인 지침에서 제시되는 안전성 기준이 위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집단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생활공간에서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유지에 대한 욕구를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농촌노인용 집단농장내 주거단위의 설계에 있어 각 생활공간이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집단농장은 형성된 지 1년밖에 안 되고 열악한 조립식 건물로 이루어진 시설로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유지 과정에서 겪어온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는 농촌노인이 새로 이주한 뒤 住생활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항목의 신뢰성 있는 척도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농장 입주 농촌노인이 생활공간환경의 美的 측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실내외 환경 조성시 고려해야 할 미적요인의 영역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적인 실내디자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립식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의 미적기능 결여가 초래하는 심리적 영향은 곧 실내디자인이 고려해야 할 미적영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욕구(Needs)의 영역

Morris와 Winter(1985), Murphy(1987) 등의 연구에 의하면 주거 생활에 있어 욕구(needs)는 신체의 안전성과 사회규범, 그리고 심리적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마음속에 설정한 목표(goal)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혹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거불만(housing dissatisfaction)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되길 바라는 열망(desire)이 욕구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여러 연구의 정의를 종합해볼 때 욕구는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긍정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불만의 연속적 개념으로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조건(condition that needs to be fixed)”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욕구란 집단농장의 생활공간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불만의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불편한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열망”의 복합적인 조건으로 정의된다.

노인촌락 입주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는 김태현과 서승희(1987), 이인수(1996), Lee(1990)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에 관한 이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

론들에의하면 중년기이후 사람들이 집합주거문화를 유지할때 주거생활의 만족도에따라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는데,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생활의 욕구는 1)노후의 생리적 조건을 충족시킬수있는 안전성 요인, 2)적절한 일상생활을 보장해주는 생활공간의 확보, 3)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미적측면등 세가지 범주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요약하자면 은퇴촌락,양로원,노인아파트등 중년기이후의 집단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을 반영한 안전한 공간, 적절한 사생활및 사교성의 조화를 보장하는 생활공간의 확보, 그리고 정서함양을 추구하는 미적 측면에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생활공간의 욕구”는 곧 이 세가지 영역이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할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열망이라고 하겠다.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관한 이론은 주거환경중 미적 요인이 노인의 일반적인 생활만족에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점을 확인함으로써 노인이 주거시설의 미관에대해 가지는 욕구가 다른 심리적 요인에의해 유도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김태현과 서승희의 연구(1987)에의하면 농촌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의 경우 오랫동안 살아온 주거지역과 주택에 애착을 가지므로 주거환경의 미관적 문제에대해 관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 연구를 고찰해볼때 노인에게는 주거환경중 질병이나 사망등 문제를 발생시키지않을 정도의 안전유지와 보호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은 주택의 넓이, 주변의 텃밭등 생활의 안위와 재산가치를 보장해주는 요인이었다. 즉, 노인의 주거환경에대한 미적 욕구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오랫동안 살면서 주거지역에대한 애착심이 고정될때 주변환경의 미관에대해 높은 만족을 보인다는 이론으로서 노인주거시설의 디자인은 노인입주자의 거주기간과 지역사회 친숙도에따라 매우 유도적임을 시사한다고 볼수있다.

## 2.2. 안전성

노인촌락에 입주한 중년기이후 사람들은 유사한 취향과 능력을 겸비한 입주자끼리 친목그룹을 형성하여 화훼단지조성, 애완동물사육, 채소재배등 왕성한 활동을 주요생활로 영위하고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기에 집단농장이 바로 노인촌락의 시발점이라고 볼수있다.(Randolph Hills Nursing Center,1994; Beverly Enterprise, 1994; Sommers and Spears,1992). 가벼운 노동을 동반하는 독립적인 영농생활을하는 노인촌락의 주요 생활공간중 주거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침실,거실,주방,화장실,그리고 주거공간으로의 출입구(현관)로 분류되는 이론이 지배적인데(Sommers and Spears,1992; Pynoos,1993), 입주자의 주요생활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원칙으로 제시되고있는 사항을 정리하자면 접근의 용이성(easy access)과 이용도의 증대(high usability)로 요약할수있다.

선진국의 경우 노인촌락입주자들은 그 연령에따른 신체적 특성때문에 운동능력이 일반대중에비해 낮을 뿐 아니라 50%이상인 식사, 옷입기, 침구정돈, 시장보기등의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데있어

서 한가지이상의 장애를 가지고있다. 이러한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시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현관,출입문,계단등을 디자인할때 특별한 배려를 해야하는것이 바로 첫번째 원칙, easy access의 핵심이며 일단 시설안으로 들어온다음에는 화장실, 복도,주방등의 구조를 노인들의 신체기능에 맞게 디자인함으로써 건물내부의 여러가지 부속 시설이나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함이 두번째 원칙, high usability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권장하는 내용중 노인촌락 생활공간의 디자인에서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은 일반주택보다 더욱 큰 화장실과 주방, 넓은 현관, 그리고 복도나 계단에 부착되는 안전손잡이(grab bars)로 요약된다.특히 Pynoos는 50세 이상의 남녀 201명을 대상으로 노인촌락 주거시설을 디자인하는데 지침이 되는 인간공학적 특성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는데 그 4가지 영역은 인간의 기본신체능력(예:근육의 힘, 폐활량,시력, 청력등),속도및 거리에관한 능력(예:달리기,걷기등의 최대 속도및 거리등),50세이후 사람들의 기동(걷거나 몸을 돌리거나하는동작)에 필요한 공간, 그리고 밀거나 당기는데 필요한 팔의 힘이다. 이러한 4개 영역에서 노인촌락 입주자를 대상으로한 실험결과를 중심으로 미국 노인주거시설을 위한 디자인 지침이 설정되었는데, 이 지침은 개개 노인 신체변형의 편차(예:curvature에 의한 身長감소, 비만 혹은 체중감소등 개개인의 큰 폭의 편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오차의 한계가 설정되었기에 한국노인의 체형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sup>4)</sup> 노인주거시설 실내디자인 지침의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부분으로 Pynoos에의해 권장되고있는 항목중 노인의 다양한 체형편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오차가 주어졌기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방조리대(Kitchen counter)의 높이를 34인치로할것(일반가정:36인치).
2. 오랫동안 사용할때 의자에 앉아 사용하도록 조리대밑에 폭파인 빈 공간(크기는 명시안함)을 유지할것.
3. 싱크대위 선반의 높이를 48인치이하로 제한할것.
4. 출입구에 높이 1/2인치 이상의 턱이 없어야하며 가급적 모든 턱(threshold)은 직각이 아닌 원형이나 45도의 각으로 유지할것.
5. 모든 문은 열려있을경우 32인치이상의 넓이를 유지할것.
6. 수도꼭지의 높이는 17-19인치로하고 샤워기를 걸어놓는곳의 높이는 최대 48인치 이하로 제한 할것.

요약하자면, 노인촌락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원활한 통로확보,적절한 높이의 주방기구, 그리고 화장실의 안전손잡이기동 설치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 2.3. 일상생활유지

자영농 노인촌락은 노년기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위해 비슷한 사회경제수준의 同類집단(peering group)이 형성한 주거공간이다. 이 곳은 사회보장이나 의료관리보다는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하므로 입주자는 그 생활공간의 구성에 있어 정상적인 일

상생활 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마련이다. 노년기주거시설에 있어서 일상생활유지에 대한 욕구를 설명하는 연구는 이연숙(1993)<sup>4)</sup>의 연구와 Pynoos(1993)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노후집단생활과 관련된 이론이다. 이연숙의 연구에 있어 노인의 일상생활유지욕구는 노인특유의 생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 노인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열망하는 주거공간의 영역은 크게 단위 주거공간(individual living space)과 지역사회활동공간(community oriented activity space)으로 분류되었는바 단위주거공간은 침실, 거실, 욕실, 식당, 부엌,현관등 노인 개인의 주거단위에 존재하는 주요 생활공간이며 지역사회활동공간은 라운지,로비,행정실등 시설내 공동활동과 관련된 공간이다. 즉 이 연구에서의 공간은 개인활동 對 집 단생활로 二分된 기준에서 분류된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공간의 구조,크기,안전성을 구성하는 영역은 행동의 용이성,생리적 유지, 지각적유지,사회적 용이성등 노인의 신체기능과 사회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행동과학적(behavioral science) 요인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동과학적 기준에의해 세부적인 공간지침이 정해졌는데 이를테면 욕실의 문넓이,샤워기의 높이, 발코니 조명도, 식탁 테이블 높이, 계단의 경사도등이 제량화되었다. 공동사용공간의 구성은 공동생활중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제시되었는바, 라운지의 바닥재료,엘리베이터 크기,환기시설,현관문손잡이의 크기등이 그 예다.

## 2.4. 미적측면

미적측면과 관련된 욕구는 주거만족을 높이는 디자인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파악한 연구사례가 보고되었다. Pynoos(1993)<sup>5)</sup>는 독립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미국노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설의 공간구성중 노인입주자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방 내부구조및 장식의 변경가능성, 방 외부구조및 장식의 변경가능성, 건물의 구조 혹은 용도변경가능성, 주차공간확보, 외부

<표 1> 생활공간욕구와 관련된 이론

이론	연구자(년도)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과 생활만족	김태현외(1987) 주거지역과 주택의 애착심이 미적 욕구를 완화시키는 원리를 설명
일상생활유지	이연숙(1993)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편리성 요인을 설명 예 :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유지, 사회적 용이성
미적측면	Pynoos(1993) 주거만족을 높이는 디자인 요건을 설명 예 : 방 내부구조 및 장식의 변경가능성, 방 외부구조 및 장식의 변경가능성, 건물의 구조 혹은 용도변경가능성, 주차공간, 외부인과의 옥외사회활동공간
경직성 및 애착심	이인수(1996) 노인전용주거시설 노인이 오랫동안 친숙한 물건과 경치, 주변환경등에 강한 애착을 갖고 오랫동안 보존하려는 습성을 설명
상징 및 교환	이인수(1997) 가족의 지위, 풍수지리에 대한 믿음등 상징적인 과 가족내 위계질서를 공간구성에 반영하는 원리를 설명

인과의 옥외사회활동공간 확보를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촌락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그들 침실의 구조,실내장식,방문에 그림을 붙이는등 장식을 할수있는 가능성,주차공간의 확보, 외부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했을때 사적인 시간을 가질수있는 공간에대해 가장 높은 주거만족을 나타냈다.

노인들, 특히 자녀와 고립된 생활을하는 노인들은 직접적인 부양자가 가까이 있지 않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비롯된 보호본능에의해 자기가 오랫동안 지니고있던 물건, 오랫동안 익숙해진 장면(예:창밖의 경치,복도에걸린 그림)에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며 그것이 다른곳으로 가거나 분실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는 경향이있다. 이러한 친숙한 사물에대한 애착은 노인촌락이나 요양시설등 노인전용 시설의 실내디자인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급적 노인전용시설에서는 노인으로 하여금 방을 바꾸게해서는 안된다는 지침, 노인촌락에 입소할때는 평소에 소중히 지니던 인형, 소품들을 꼭 침실에 진열하게하는 지침이 그 예가 된다.

상징및 교환이론(이인수,1997)은 가족의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지향하는 상호 원만한 관계유지와 상징적 내면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이 이론에의하면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구조,공간배치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주고 받으며 가족이 추구하는 전통과 사상의 상징성을 유지한다. 노인유위한 별채를 들때는 텃마루와 소여물 꿩이는 작은 부엌을 뒹으로써 토지및 가족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인시키는 경우,안방의 출입문과 사랑채 출입문이 서로 마주보게하는 경우, 대청마루는 남쪽을 향하고 마당 동쪽에는 감나무를 심는 관습등이 상징및 교환이론에 속한다. 특히 대가족이 공동체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접해서사는 친족의 세대수, 토지의 공유, 노동분담형태에의해 가족의 구조와 공간구성이 결정된다. 요약하자면 상징및 교환이론은 친족의 결속(solidarity), 재산공유, 위계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가족구조및 공간구성,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조화를 통한 심리적안정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가족생활을 이루는 노인들의 공간에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지향해야할 가족의 크기,공간별 배치,상징조형물의 미적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상에 소개한 이론들을 요약하자면 노인촌락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를위해 갖고있는 공간욕구는 우선 침실,거실,욕실,식당,부엌,현관등 노인개인의 생활공간과 라운지,로비등 공동생활 공간이라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야하며 이러한 공간별 욕구는 안전성확보,행동의 용이성,생리적 유지,지각적유지,사회적 용이성, 미적감각등의 영역으로 세분된다고 할수있다.또한 공간구조및 장식물의 변경가능성이 노인입주자의 큰 열망으로 존재하며, 노인이 오랫동안 살면서 고정된 애착심, 가족과의 결속이 미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미적 욕구를 완화시킨다는 점이 노인주거시설의 디자인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4)이연숙, 노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 경춘사, 1998, pp.55-58.

5)J.Pynoos et al, Housing the Aged, Elsevier Press, London, 1998, pp.133-155.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과 갈산면 경계지역에 96년 9월에 형성된 1개 자영농장형 노인촌락을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실측과 60세이상 노인입주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입주자중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활발한 노인을 대상으로한 1차조사, 그리고 전체노인을 대상으로하는 2차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1차조사는 의사표현을 활발하게 할수있는 노인 6명을 선정하여 고정된 문항없이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는 직접 면담식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2차조사에서는 1차조사내용에 대한 同意정도(degree of agreement)를 1차조사에 응한 노인을 포함한 19명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농장은 총 7개棟 14가구(棟別 2가구)의 조립식 가옥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자영농장형 노인촌락으로서, 운영회사나 법인이 없이 토지및 건물소유개인이 조립식 가구와 농장을 임대하고, 입주한 사람들이 친목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독립생활 집단 영농을 전제로한다. 이곳에는 총 22명의 노인입주자가 만4천여평의 밭을 경작하며 사는데 이곳에 이주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소유자와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sup>6)</sup>

첫째, 입소할때는 1인당 3500만원의 전세금(부부일 경우 7000만원)과 1인당 350만원의 입회비를 지불하며 관리비는 월 15만원을 납부한다.

둘째, 관리비는 조립식 가옥의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충당하되 გადა 지출시 추가부담을 한다.

셋째, 식사는 입주자 각자의 숙소에 구비된 주방에서 직접 준비한다.

넷째, 응급상황 발생시(예:발병,사망등) 치료비,장례비등은 입회비에서 우선 변제하고 가족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한다.

각 가구는 실제면적 14평의 기틀보일러 온돌난방식 조립식 단층 가옥에 사는데 각 가구는 1.5평짜리 화장실외에 개방된 공간을 침실,주방,거실 겸용으로 사용한다.프로판 가스공급식 일반 가정용 쌍크대와 식탁을 가졌으며 화장실은 좌변기와 세면대및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 소유주의 획일적인 건축에 의해 조사대상 가구의 가옥 구조는 동일한 조건 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8세, 최고령자는 76세며 성별로볼때 남자 42.16%, 여자 57.84%였다.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종교는 불교,기독교,천주교가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하였다. 1차면접은 중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설문에 응하기를 허락한 3쌍의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대상입주자 6명(남자3, 여자3)중 최연소자는 60세 최고령자는 74세로 평균연령은 64세였으며 종교는 불교2,기독교1,천주교 1, 무종교 2명이었다. 6명 모두 1부양자(재정문제와 위급상황 책임자)는 아들이었다.또한 1차조사 대상자 모두 본

6)한서대학교,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보고서, 1997. 97-1, p6

집단농장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체류하였으며 입소전까지 충남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표2).

#### 3.2. 단계별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대로 1차와 2차의 분리된 단계에 의해 조사 분석되었다. 1차조사는 실측과 주관적 면담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실측은 농장내 주거단위의 주요 생활공간을 각 항목별로 실제 측정하고, 주관적 면담은 주어진 형식없이 입주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 1)실측된 항목에 대해 입주자가 안전성 측면에서 지니고있는 욕구,
- 2)생활공간에서의 일상생활유지에 대해 가지고있는 욕구,
- 3)생활공간의 미적측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등

총 3개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의 측정도구에서 기술한 내용으로 모든 입주자에게 동일하게 하였으며 답변중 입주자가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한 것을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분류하여 중복응답횟수를 가산하여 가장 중복응답 빈도가 높은 내용부터 순위별로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얘기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답변하도록 다시 조정하여 최고 15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자유형식 답변에 있어 15가지 항목을 초과하지않는 Pynoos(1993)연구방식에 준하도록 표준화하였다.

실측은 본 연구 이론적 배경의 안전성지침에서 고찰된 항목중 연구대상 농장의 주거공간에 실제 존재하는 항목에 한해 그 크기와 넓이, 높이등을 측정하였는데 출입구와 화장실의 문이 최대한 열렸을 때 확보되는 통로의 넓이, 화장실 샤워기의 높이, 화장실의 안전손잡이(grab bar)에 해당하는 소품) 유무, 화장실및 거실의 바닥재질, 조리대의 높이및 밑에 의자가 들어갈 공간확보 유무, 그리고 선반의 높이등 6개 항목을 측정하여 이에 대해 평소 입주자가 느끼고있는 욕구내용을 면담하였다. 실측및 주관적면담조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11월15일까지 5회이상 방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4년제대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 3명과 연구책임자 1명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기간중 농장일이 끝난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면담을 하였다.

면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어려움은 본 연구질문에 노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사 항목과 무관한 이야기를 전개 하여 불필요하게 답변내용이 길어지거나 답변내용을 요약 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한 내용이 혼합되는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열거하는 경우였는데 이러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그 질문에 해당 하는 관심사에 대해 가급적 간단하게 객관적 용어로 표현 할수있는 방식으로의 답변을 유도 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모른다”, “글쎄..”등의 답변으로 지나친 경계나 무반응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여자노인이 있었는데 그 즉시 면담을 중단한 뒤 면담의 학술적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옆에서 다른 노인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답변 하는 것을 보게하여 자신감을 갖게 한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회 방문시 1-2명만의 노인이 면접이 진행되어 11월 중순에 완료되었다.

2차조사는 1차조사 종결 2개월 후 1회 방문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1차조사에서 6명의 입주자로부터 도출된 주관적 항목에 대해 전체 입주자가 同意하고있는 정도를 객관적인 척도로 계량화하는 과정에 의해 분석되었다. 1차조사에서 도출된 주관적 내용중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중복응답한 항목의 내용을 요약한뒤 그 내용에 대해 개개 노인이 동의하는 정도를 점수화하여 각 영역별로 "욕구정도의 총점"을 합산한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다.

4.화장실및 거실의 바닥재질,

5.조리대의 높이및 밑에 의자가 들어갈 공간확보 유무,

6.조리대위 선반의 높이에대해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기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답해주시시오

(2) 일상생활유지에 관한 욕구

1)추정내용:노인촌락에서 생활하면서 침실,거실,화장실,주방,복도,현관을 포함한 주요 실내 생활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있어 입주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

2)질문형식: 귀하가 이곳에 입주하여 식사, 용변, 세수, 목욕, 취침등

<표 2> 집단농장 경영양식 및 입주자의 특성

항 목	구 성 내 용				
노인촌락의 형성과정	만4천평의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가 96년 여름 7천?의 조립식 가옥을 짓고 주변노인들에게 경작지를 평당 4만원에 개인별로 원하는 평수만큼 임대하고 14평짜리 가옥 1가구당(1기구 2인 입주기준) 7000만원에 전세임대함.				
경영양식	정부의 허가를 얻은 법인체는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일반 사업으로 경영함. 개인적 친분이 있는 노인들끼리 수시로 입소와 퇴소함. 1인당 입회비 350만원, 관리비는 월 15만원을 납부하고 식사는 스스로 해결함. 직원은 따로 없고 땅 소유자가 인접해 살고 있음. 위급상황시 처리비용은 입회비에서 우선 변제하고 가족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함.				
입주자구성	60세이상 중.노년층 총 22명중 남자 10명, 여자 12명(10쌍의 부부와 2명의 독거 여자노인)으로 구성. 98년 1월현재 최연소 만 60세 최고령 76세. 평균연령 68세임.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	연령대	학력(중퇴포함)		종교
	남 8(42.16)	60-64 3(15.79)	무학 3(15.79)	불교 6(31.58)	
	녀 11(57.89)	65-69 9(47.37)	서당 3(15.79)	기독교 4(21.05)	
		70-74 6(31.58)	국민학교 5(26.32)	천주교 2(10.53)	
	N=19(100.0%)	75+ 1(5.26)	중학교 6(31.58)	없음 5(26.32)	
			고등학교 2(10.53)		
생활양식	자신이 賃借한 밭을 자영하며 대도시 소비자와 자매결연을 맺어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1인당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등 전형적인 독립생활을 영위함.				
주거공간구조	14평짜리 주거단위 2개가 1개 ?을 이루고 전체 7개동으로 구성. 1세대당 2명씩(부부 혹은 독거 노인 2명) 거주하며 각 주거단위는 1.5평짜리 화장실만 따로 간막이가 되고 나머지 공간은 개방되어 주방, 침실, 거실 다목적으로 활용함.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분석목적상 "욕구"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사항을 개선시키기위해 변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 정의를 내리며 이러한 "욕구"의 측정은 평소 생활하면서 느껴온 불편, 그리고 그 불편을 시정하기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한 면담 에 의해 이루어졌다. 2차조사의 척도가 되는 "욕구의 정도"는 1차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진술한 주관적 항목을 요약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개개인이 同意하는 정도를 1-5까지 수치화(numerization) 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하게 동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영역별로 측정된 내용,질문형식, 그리고 2차조사에서의 척도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에 관한 욕구

1)추정내용:주요 생활공간 안전성에관한 6개지침 항목에대해 입주자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욕구

2)질문형식:귀하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 1.출입구와 화장실의 문이 최대한 열렸을때 확보되는 통로의 넓이,
- 2.화장실 샤워기의높이,
- 3.화장실의 안전손잡이(grab bar)에 해당하는 소품) 유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있어 방, 부엌, 거실, 화장실, 출입구등 이 건물 내부에대해 불편하게 생각되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되 자신의 생활공간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3) 미적측면에 관한 욕구

1)추정내용:노인촌락에서 생활하면서 생활공간의 미적 측면, 즉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에대한 욕구

2)질문형식:귀하가 이곳에 입주하여 살아오면서 건물안과 주변환경 중 특별히 보기좋다고 생각되어 미적 측면에있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답해 주십시오.

(4) 2차조사자료의 數值化:

1)5점척도 설정:1차조사에서 6명 응답자중 과반수 이상이 중복진술한 주관적 내용을 요약한뒤 2차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19명에게 그 내용에대해 同意하는 정도를 질문하여 1-5점까지 5점척도(five-point scale)로 수치화하였다. 질문내용은 "주관적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술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실제 이곳 농장에서 생활하면서 이 내용에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십니까?"였으며 답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4점), “잘 모르겠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2)”,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1점)”로 5단계로 나누어 객관식 답변을 유도하여 각 질문항목별로 1-5점을 부과하였다.

2)영역별 신뢰도검증:위의 방법의이해 척도화된 각 항목별 점수는 Babbie(1986)가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에서 사용한 “척도화된 설문조사자료의 신뢰도검증(Reliability Test of Numeric Scaled Survey Data)”방법에 準해 Spss 통계 프로그램에의해 신뢰도검증을 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신뢰도계수(Reliability Index Value)인 Gamma 값이 0.5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성에관한 영역의 욕구는 총5개항목, 일상생활유지 영역에관한 욕구는 6개항목, 미적영역에관한 욕구는 6개항목이 척도화되었으며 각 항목별로 점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계산되었다.

## 4. 결과 및 고찰

### 4.1. 안전성 영역의 욕구

본 연구의 분석결과중 생활공간의 안전성과 관련된 욕구는 표3에 정리되었다. 1차조사에서 6명 노인들이 자유로운 양식에따라 답변한 바에 의하면, 배추등 부피가 많은 농작물을 집안에서 다듬고 씻기위해 대형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두사람이 들고 들어올때 가옥 출입문이 매우 비좁은 것이 조사대상자 중 대다수인 66.7%의 불만으로 진술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응답자가 제안한 것은 출입문이 학교나 공공기관의 현관문 처럼 두개의 문이 붙어 있으며 평소에는 한쪽만 사용하다가 필요시 양옆으로 터서 넓게 사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러한 출입문 항목에대한 욕구에 대해 전체응답자 19명의 동의수준 평균점수는 4.2로서, 대체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노인촌락 가옥의 출입문은 조립가옥의 규격품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권장하는 최대 넓이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넓기를 원하는 욕구가 제기된것은 본 연구 대상자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특이성에 기인한다고 볼수있다. 즉 자영농업을 중심으로하는 노인촌락 생활공간 출입구는 수확한 농작물을 집안으로 가져오는 경우를 대비해 2단의 대형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고 하겠다. 출입문의 안전성에대한 또다른 진술은 비록 한 명만이 응답하긴했지만 문을 열고 닫을때 문이 필요이상으로 넓게 열려 난방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출입시 현관문을 완전히 닫지않거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등 난방및 공공요금 낭비초래는 선진국 노인 주거시설 에서도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는바<sup>8)</sup> 이것은 고령으로인한 기억력 감퇴, 그리고 문이나

수도꼭지를 굳게 잠그는 근육힘과 감각의 둔화에서 오는 현상인 동시에 특히 농촌재래농가의 미단이 문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으로 해석된다.

샤워기가 43cm높이로 낮은위치에 있는데 대해서 1차조사대상자의 50%만이 불편함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불편함에대한 전체노인의 동의정도 점수는 3.5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고있다. 샤워기가 낮은것에대한 불편함에대해 특별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앉아서 샤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높이의 샤워기가 오히려 편리 함으로 인식되기때문인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연구결과에의하면 노인들은 샤워기를 사용할때 대부분 높이 걸어놓고 사용하는데비해<sup>9)</sup> 본 연구에서는 50%만이 낮은 위치 샤워기를 불편 하게 생각하는 점을 미루어볼때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서서 샤워하는 습성이 고정된 반면 한국노인들은 이러한 습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석할수 있겠다.

화장실바닥이 타일로 된점에대해서는 1차 조사대상자의 88.8%가 불편하게 생각하는바 그 가장 큰 원인은 발에 비누가 묻을 경우 몹시 미끄럽기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면담노인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무판,지압용 깔판등 미끄럼방지를 보장하는 재료에대한 강한 욕구를 표출하였으며 이 항목에대한 욕구에대해 전체응답자 19명의 동의수준 평균점수는 4.3으로서, 대체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인주거시설의 필수불가결한 안전성 지침인 안전손잡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중 아무도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 부유층 도시노인을 대상으로한 노인주거시설 디자인에관한 여론조사에서 안전손잡이를 선호하는 결과와<sup>10)</sup> 대조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에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기하고자한다.

첫째, 한국형 農家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집단농장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안전손잡이를 본적이 없어 그 사용의 중대성에대한 인식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둘째, 독립적으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에 안전손잡이는 병약한 사람에게나 필요 하다는 생각, 즉 자신의 신체능력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으로 인해 안전손잡이에대한 욕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수있다. 월 100-150만원의 소득능력이있으며 노후에 유료노인시설입주를 고려하는 도시노인들중 52.5%는 입주희망의 가장 큰 이유로 “시설직원으로부터 자녀를 대신한 일상생활및 보건 의료보호를 받기위함”을 들고있음이 최근 연구에서 나타 나는바<sup>11)</sup> 도시노인들은 노인 주거시설을 비교적 의존적인 장소로 인식하고있다고 하겠다.

이에비해 본 연구대상 노인들은 스스로 농지를 관리하고 수확물을 직판하는등 왕성한 활동의욕과 역동적인 성향을 지녔으므로 노인

7)Earl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Publishing Co, Belmont, California, 1986, pp.523-528.

8)A.J. Greca et al, Retirement Communities and Their Life Stages., American Journal of Gerontology 40(2), 1985, pp.211-218

9)J.Pynoos et al, Housing the Aged,Elsevier Press,London, 1985, pp.336-338.

10)석정개발, 전원형 실버타운개발 보고서, Series.94-fall, 1994

11)이인수, 장기보호시설의 개발에관한 연구(2), 한국노년학회지 16(2), 1996, pp.102-119.

<표 3> 안전성과 관련된 욕구

번호* 디자인지침	실측결과	욕구내용	중복응답수(%) n=6	동의점수:평균+S.D. (만점 : 5, N=19)
1. 81cm이상 81-87cm**	84cm	다리에 배추를 담아 두 사람이 양옆으로 들고 안에 들어올때는 문이 좁음. 따라서 현관출입구는 2개가 붙어있으며 평소에는 한쪽만 사용하다가 조금만 열어도 될 때에도 활짝 열려 찬바람이 들어오는 수가 있으므로 문의 크기가 작기를 원함	5(88.8) 1(16.7)	4.2±0.9
2. 122cm높이 115cm**	43cm	서서 샤워할 때 샤워기를 걸어놓을 수가 없어 한손으로 하거나 땅에 내려놓아야 하기에 불편함. 얼굴 높이에 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음.	3(50.0)	3.5±0.6
3. 좌변기옆 안전손잡이	없음	아무런 욕구를 진술하지 않음.		
4.미끄럼방지용 특수재질	화장실 바닥은 타일, 거실은 비닐장판	화장실 비누가 묻어있을 때 몹시 미끄러움. 화장실 바닥에 나무판 혹은 부드러운 지압용 깔판을 깔기 원함.	5(88.8)	4.3±1.2
5. 조리대높이 87cm 유지. 81-87cm** 조리대말에 의자들이갈 공간확보. 41cm이하 공간확보**	85cm  막혀있음	아무런 욕구를 진술하지 않음.  오랫동안 조리대에 서서 반찬을 다듬고 썰기 힘들므로(예:조개, 도라지다듬을 때) 조리대말에 움푹파인 공간이 있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뺄수 있기를 원함. 조리대 및 보관함의 뚜껑이 미달이로되어 필요하면 열어놓아 조리대 및 빈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함	4(66.7) 2(33.3)	3.9±0.8
6. 조리대위 선반의 높이를 122cm이하로 유지할 것  총 응답수 : 26 1인당 평균 응답수 : 4.33	199cm 높이 책꽂이로 대응	조리대 바로 앞에 있지 않으므로 주방기구를 진열했다가 꺼낼 때 무거운 기구를 앞에서 꺼내 옮기기가 불편함. 조리대 바로위에 선반이 있어 접시, 그릇등을 편리하게 보관하기를 원함.  책꽂이에 뚜껑이 없어 진열해 놓은 것이 다 보이니까 누군가 찾아왔을 때 창피함. 커튼이나 뚜껑으로 가리를 원함.	3(50.0) 2(33.3)	4.7±0.4

\*각 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내용 :

1. 출입구와 화장실의 문이 최대한 열렸을 때 확보되는 통로의 넓이
  2. 화장실 샤워기의 높이
  3. 화장실의 안전손잡이(grab bar)에 해당하는 소품) 유무
  4. 화장실 및 거실의 바닥재질
  5. 조리대의 높이 및 밑에 의자가 들어갈 공간확보 유무
  6. 조리대위 선반의 높이
- \*\* : Pynco의 권장사항중 조소영의(1998)가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조정한 내용.  
그외의 지침은 노인의 다양한 체형편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오차가 주어졌기 때문 에 Pynco 권장사항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부분

심리상 “활동성 집단(Atchley,1988)”, 즉 의존성을 배격하고 젊은이들에 버금 가는 자존심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특성을 지니면서 자신의 신체기능을 의존하는 안전손잡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조리대의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구를 진술하지않은 반면 조리대말이 막혀있는것, 그리고 조리대옆 선반대용의 진열대가 지나치게 높은데대한 욕구는 강하게 표현되었다. 조리대에서 나물,생선등을 오랫동안 씻고 다듬는 작업을할때 앉아서 작업할수 있도록 조리대 밑에 빈 공간이 있기를 원하는 응답자비율은 총 100%였는데 이중 조리대말이 빈 공간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4명(66.7%)이고 조리대말 보관함이 미달이문으로 되어 필요시 열어놓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2명(33.3%)이었다. 조리대말이 빈 공간이기를 원한다는 항목에 대한 욕구에대해 전체응답자 19명의 동의수준 평균점수는 3.9로서, 중립적 성향을 다소 초과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연숙(1993)의 연구에서 한국노인의 체형에 적합한 조리대에관해 제안된 사항은<sup>12)</sup>

- 1)높이나 깊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리대말에 의자가 들어갈수있는 충분한 공간확보,
- 2)조리대위 1.2평방미터이상의 작업공간확보인바, 이중 첫번째 항목, 즉 조리대말의 빈 공간확보가 본 조사대상의 욕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조리대옆에 세워두고 선반代用으로 사용하는 목재 책꽂이높이 방바닥으로부터 199cm까지 나되고 폭은 64cm에 불과해 생활용품 높이를 쌓아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1차조사 응답자의 50%는 선반이 조리대 바로 앞에 있지 않으므로 주방기구를 진열했다가 꺼낼 때 무거운 기구를 앞에서 꺼내 옮기기가 불편하므로 조리대 바로위에 선반이 있어 접시, 그릇등을 편리하게 보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조사 응답자의 33.3%는 선반위에 뚜껑(덮는 문)이 없으므로 진열해 놓은 물건들이 보이니까 누군가 찾아왔을때 부유하지 못한 생활도구가 노출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조리대에 선반이 붙어있지 않은데대해 1차조사 응답자의 50%정도가 불편함을 진술한데비해 전체입주자를 대상으로한 2차조사에서는 동의점

12)이연숙, op.cit., 1998, pp.112-116.



수가 4.7이고 표준 편차도 0.4로 매우 낮아, 대부분 입주자가 이에 대한 강한 욕구불만에 전적인 동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조사 응답비율이 50%인데 비해 2차조사결과는 전적인 동의에 가까운 점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는 주관식 면담과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출된 견해에 대한 객관적 척도화면 담을 병행할 경우 발생하는 “기억상기효과(reminding effect)”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자발적인 답변에는 매우 둔감한 성향을 보이는 반면 이미 제안된 내용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게되는 노인 특유의 심리현상(Atchley, 1988)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억상기효과는 한국노인을 대상으로한 주거선호도 조사에서 유동적 성향(changeable trend)<sup>13)</sup>으로 나타나는 연구사례가 보고된바있다. 예를들어 노후의 이상적인 주거시설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하는 주관적 질문에는 극히 일부 노인만이 노인촌락선호경향을 보이지만 소수응답자가 진술한 후 동의여부를 객관적 척도로 질문할 때는 절대다수가 노인촌락 입주 선호경향을 보이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주방시설이 매우 빈약하여 조리대 하나만 있고 조리대 바로 위 벽에 부착된 선반이 없는 것은 집단농장의 조립식 가옥구조의 불가피한 조건이었는데 조립식 건물 벽이 견고하지 못해 조리대를 세워놓을 수는 있지만 벽에 선반등을 고정시킬수는 없기에, 조리대 옆에 책꽂이를 높이 세워놓고 선반대용으로 사용하는 데서(사진1) 비롯된 욕구가 형성되었다고 볼수있다.

#### 4.2. 일상생활유지 영역 욕구

생활공간의 일상생활 유지에 관한 입주자의 욕구는 표4에 정리되었다. 생활공간에서의 일상생활유지중 발생하는 가장 절실한 욕구는 대부분의 1차조사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바와같이

- 1) 조립식 건물의 벽이 얇으므로 인해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므로 두꺼운 방음벽이 구비된 조용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것,
- 2) 밀폐된 조립건물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옥스타일의 대청마루를 원하는 것,
- 3) 낮은 천장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대들보쪽 위로 움푹파인 한옥스타일의 천정을 원하는 것임을 알수있다.

이러한 3개 진술 항목중 1), 3) 항목은 전체입주자의 동의정도 점수가 각각 4.8과 4.6으로서 모든 입주자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며 절실하게 원하는 것인데 비해 2)의 항목 한옥스타일의 대청마루에 대한 전체입주자의 동의정도 점수는 3.6에 그쳐 비교적 중립적 성향을 보였다.

사람의 청력은 60세를 전후하여 큰 변화가 오는데, 고주파 소리에 대한 청력은 일관성있게 감퇴하는 반면 저주파 소리에 대한 청력은 60세 이후 70세까지는 오히려 증가한다(김태현, 1994;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1994). 이러한 결과로 인해 60-70세 노인들, 특히 미국 노인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노래소리, 대화, 음악, 교통소음 등 고주파 소음에는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반면 새벽에 누군가 복도를 걸어가 는 소리, 방문여닫는 소리 등 주위 고주파소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저주파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Sommers and Spears, 1992; Beverly Enterprise, 1993). 집단농장은 면 단위 농촌지역이므로 교통, 음악, 공사 등 고주파 소음이 없는 반면, 그렇기 때문에 심야 바람에 얽은 조립 건물 벽면이 진동하는 저주파 소음은 더욱 민감하게 수면 방해와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노인 입주 자들은 조립식 얇은 벽보다는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선호한다고 사료된다.

농촌가옥에 있어 대들보를 중심으로한 삼각형 천정은 收藏공간과 裝飾기능의 역할<sup>14)</sup>을 해왔다. 한국형 농가에 있어 깊이 파인 천정은 대청마루 밑, 대문 밑, 외양간이나 창고 등 여러 곳에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사물이나 가정용품중 특히 외부습기 접촉을 피해야 할 품목을 매달아 놓는 수장공간은 물론 부적, 표구, 벽화를 부착하는 장식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생 살아오던 農家를 떠나 조립식 막사에 입주한 노인들에게 대들보와 천정의 상실은 개인수납공간 손실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내집상실”, “家系 전통상실”이라는 상징적 파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립식 건물 낮은 천장은 입주자 대부분의 정서를 민감하게 자극하는 욕구불만 요소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1차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오랫동안 농촌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기에 노인 특유의 “익숙한 생활에 대한 동경심”이 작용하여 한옥스타일의 대청마루를 원하는 데 비해 전체 입주자 同意점수 평균값은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을 띠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주 전 거주 장소의 다양성에 기인한 중립적 성향을 들고자 한다. 충남지역 농촌가옥의 경우 올림픽이 끝난 90년도 이후 구조변경이 많이 진행되어 가옥의 대청마루 지점에 조적식기초를 하고 거실이나 입식 주방으로 변경한 비율이 50%<sup>15)</sup> 이상되는바, 전체 입주자 중 개량된 농가에서 생활하다 입주한 노인들 대부분이 대들보와 천정 사용은 지속했지만 “마루”에 대한 필요성은 상실하였기에 “마당과 연결되는 한옥스타일 대청 마루”의 욕구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촌락에 없는 공간으로서 1차조사 대상 입주자 중 과반수 이상이 열망하는 공간은 1) 분리된 부엌, 2) 가마솥을 겸비한 재래식 아궁이, 3) 농작물이나 생활도구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넓은 처마 밑 공간, 4) 그리고 지하실이나 창고 등 다용도 공간이었다. 도표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입주자의 개별 면담에서 진술된 바에 의하면 노인촌락에서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입주자들은 사과, 감자, 무우, 호박 등 월동 농작물

14) 최인호, 홍승재, 전통주택의 다락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2), 1997, pp.1-16.

15) 한서대 학생생활연구소, 학교주변 재래농가의 소멸과정에 관한 보고서, 미출판된 내부 연구보고서 내용 인용, 1998

13) 이인수, 노인의 주거성향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회지 17(1), 1997, pp.176-192

보관을 위해 창고나 지하실이 있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보관하지 못할 경우 자매결연받은 대도시 사람들이 겨울 이전에 농작물을 진량 매입하기에 지하실이나 창고가 모든 입주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닌것으로 나타난다. 창고가 없는것을 주거생활의 중대한 불편으로 인식하지는 않으며 노인층락 입주자들은 대부분의 농작물을 가을에 집밖 공터에서 건조시킨뒤(사진2) 부피를 축소하여 집안에 꼭 필요한 양만 보관하고 있으며 농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생활도구는 화장실과 기타 생활공간에 보관하고 있다.

“별도의 공간에 따로 분리된 부엌”은 1차조사대상자중 83.3%가 필요성을 느끼고있는 반면 전체입주자를 대상으로한 同意점수에서는 순의인 同意 성향과 전적인 반대 성향비율이 교차하여 표준편차가 평균값의 50%를 초과하면서 다른 항목에비해 응답내용의 신뢰도가 저하했다.또한 목재연료사용 가마솥과 재래식 아궁이 필요성도 1차 조사자 66.7%가 필요성을 인식한데비해 전체입주자들은 비교적 이보다 덜한 중립적 성향을 보였다. 분리된 부엌이나 재래식 취사시설에 대해 전체입주자가 일관된 욕구를 보이지 않는데대한 설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는 여성입주자 1명의 진술을 소개하고자한다.

“...여기 집안에 싱크대하고 전기밥솥있으면 됐지.. 무슨 잔치판 벌이거나 개죽(도시건 사육용 밥) 쑤기전에는... 따로 부엌내고 가마솥 걸고 장작불 때려면 집안에서는 어렵없고 바깥에 따로 다용도 실을 지어야지 별수 있겠...그러면 돈들고,장작불때면 연기나고, 개죽썰서 지저분해지면 쥐새끼꼬이고,지나뎡기다 부디치고 ....”

이러한 진술을 참고해 볼때 일단 조립가옥에 이주한 노인들중 새로운 환경에대한 적응의지가 강한 경우도 많아 무작정 과거 생활습관을 재연하려는 성향이 감소하고 새로운 주거지에대한 긍정적견해가 정착되는 성향을 지닌다고하겠다.

이밖에 응답비율이 적긴 하지만 입주자들중 한 명 이상이 응답한 생활공간은 다락방, 미단이식 현관문, 칸막이된 방, 추가적인 화장실, 발코니,개집등이었다.본 연구의 특이한 결과로서는 노인층락에 입소한 사람들이 재래식 부엌과 한옥스타일등 전통가옥식 생활공간사용에대한 욕구가 큰데비해, 따로 분리된 방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인데(사진3) 이러한 현상에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기하고자한다.

첫째, 자식과 별거하는 농촌노인경우 부부간의 정서적 지지가 생의 가장 민감한 과제기때문에<sup>16)</sup>, 열악한 주거환경으로인해 생활에 위협을 받지않는한 가장 중요한 부부생활의 보장과 난방역할이 조립식 가옥에서도 잘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사생활이 보장되는 별도 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둘째, 고립된 생활에서는 오히려 개방된 공간일수록 위급시 주위 사람과의 접촉이 쉽기에<sup>17)</sup> 특별히 분리된 방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16)김태현,서승희,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한국노년학회지 7(2), 1987, pp.77-92.

17)J.Pynoos et al, op.cit., 1998, p.20.

<표 4> 일상생활 유지에 관한 요구

번호	욕구내용	중복 응답수(%) n=6	동의점수 평균±S.D. N=19
1	밖의 소음이 안들리도록 두꺼운 벽의 생활공간이 되기를 원함	6(100.0)	4.8±0.2
2	집앞 마당으로 넓게 트인 한옥스타일의 마루가 있기를 원함	6(100.0)	3.6±0.4
3	천장이 한옥집 대청마루의 천장처럼 위로 푸 파이기를 원함	5(83.3)	4.6±0.7
4	부엌이 별도고안에 따로 크게 나 있기를 원함	5(83.3)	**
5	장작불 때는 아궁이와 가마솥이 있어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장만할 수 있기를 원함	4(66.7)	3.1±0.7
6	처마밑이 넓고 위쪽으로 움푹 파이고 집 네 방향으로 모두 둘러쳐있어 농산물, 농기구, 생활도구를 걸어놓을 수 있기를 원함	4(66.7)	4.2±0.3
7	지하실이나 창고가 따로 나 있기를 원함	3(50.0)	3.2±0.8
8	다락이 있기를 원함	2(33.3)	
9	여는 넓이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일단 열에는 상태에서 문이 쉽게 고정되도록 현관문이 미닫이 문이기를 원함	1(16.7)	
10	방이 따로 칸막이가 되기를 원함	1(16.7)	
11	화장실이밖에 한 개 더 있어서 거름통, 퇴비보관함 겸하기를 원함	1(16.7)	
12	발코니가 있기를 원함	1(16.7)	
13	현관앞에 개집이 있으면 좋겠음	1(16.7)	
총응답수 : 40			
1인당 평균 응답수 : 6.67			

\*\* : Reliability Gamma Value <0.5

### 4.3. 미적영역욕구

생활공간의 미적영역에관한 욕구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1차조사대상자가 강하게 원하며 전체 입주자도 높은 수준의 同意를 보이는 사항은

- 1)주위에 젊은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 2)숙소가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고,
- 3)집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아늑한 정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잘 나타나듯이(이인수,1995;이인수,1996) 노인집합 주거시설은 특수시설이 아니라 “제2의 가정(The Second Home)” 이기를 노인 입주자들이 갈망하는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즉, 시설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리적 여건이나 안정된 정서를 유지할수있는 시설의 외형적 구조야말로 노인입주자에게 가장 매력성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 면담과정에서 촌락이 시각적 매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진술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직선으로 늘어선 창고와 조립식 건물에 발 가운데 있어 멀리서 보면 수용소식 집단농장을 연상하게하여(사진4) 노인층락에 살고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게 느껴지고,

둘째, 자식이나 친구가 찾아왔을때 안락한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어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고,

셋째,조립식 건물이 언제 다시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즉 주거공간의 영속성결여가 집단농장 입주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노인촌락의 주거환경은 입주자의 눈에 젊은 사람의 왕래와 쾌적한 자연경관, 문화시설의 전망이 조혜 제공되어 입주자의 정서안정과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해야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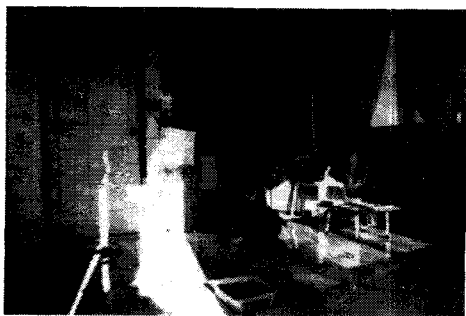
<사진 4> 일직선으로 늘어선 창고와 조립식 건물이 발 가운데 있어 멀리서 보면 수용소식 집단농장을 연상하게 하여 노인촌락에 살고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게 느껴지고 자식이나 친구가 찾아왔을때 안락한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어 우울한 감정을 유발한다.



<사진 1> 조립식건물 벽이 견고하지못해 조리대를 세워놓을 수는 있지만 벽에 선반등 고정시킬수는 없기에, 조리대 옆에 책꽂이를 높이 세워놓고 선반대용으로 사용한다



<사진 2> 노인촌락 입주자들은 대부분의 농작물을 가을에 집밖 공터에서 건조시킨 뒤 부피를 축소하여 집안에 꼭 필요한 양만 보관한다.



<사진 3> 노인촌락에 입소한 사람들이 재래식 부엌과 한옥 스타일등 전통가옥식 생활공간 사용에대한 욕구가 큰데 비해, 따로 분리된 방의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으므로 14평의 공간에 침실, 거실등 아무런구분(간막이)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응답빈도가 높은 항목들은 1)이웃세대와 마주보는 구조(5명응답), 2)위험구조물(전봇대)의 제거(4명응답), 3)정원의 꽃(4명응답), 4)우물이나 개울(4명응답), 5)주위의 높은 산(3명응답), 6)집 주위에 날아오는새(3명응답), 7)전망(2명응답), 8)창밖의 교회,학교등 문화시설의 풍경(1명응답)등의 順이었다.

Pynoos(1993)의 연구에서도 20-30명 거주용 소규모 노인 촌락의 구조는 중앙행정건물 (central service building)을 중심으로 각 주거건물이 마주보며 원, 혹은 4각형을 이루어 왕성한 사고활동및 위험발생 상호感知를 하는것을 노인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보고하는바, 본 연구의 입주자 역시 일반적으로 노인시설 입주에서 생겨나는 “상호 사고추구와 안전관리” 에대한 욕구가 나타난다고 할수있다. 다만, 이웃세대와 마주보는 구조에대한 욕구가 1차조사에서는 높은 응답율을 보인데비해 전체입주자의 동의성 평균점수는 3.8로서 尠의인 同意보다는 중립성에 다소 가까운데 이러한 현상에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기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노인집합주거시설의 생활공간이 매우 짧아 아직 주거단위 배치에의한 사교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생계를위한 농업에 종사하는 특성을 강하게 지니므로 자신 소유물의 도난방지등을 우려하여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할수 있을 것이다.

가정을 떠남으로써 가족과 인위적인 별거를 하는 노인(예:양로원이나 실버타운 입소등)들은 시설의부환경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양로시설 Unit은 연평균 11.2%의 입주자퇴소율(매년 시설에 살고있던 노인의 11.2%가 퇴소함)을 보이는데 퇴소하는 사람의 약 1/3이상이 시설의 지리적조건 (지역사회의 미관,사회환경,문화시설,대중교통의 편리성, 지역주민의 質등)에 불만을 느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보고되고있으며(Beverly Enterprise 1993; Crimmins 1990)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이상이 지난 20년이상 거주하던 집을 중심으로 반경 25mile의 근린지역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고있음이 보고되고 있다(Goldschneider 1989; Mindel 1979; Morris and M.Winter 1985).

이러한 연구에서 근린지역을 선호하는 이유중 미적영역을 자유로운 형식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공통점을 우선순위로 정리하면

- 1.층계나 가파른 경사가 없는 평지에 노인주거시설이 위치하고
- 2.시설주변에 수목이 울창하고
- 3.주변에 장의사,고지등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시설이 없어야하고,
- 4.시설주변에 상징성이 강한 구조물(landmark), 예를들어 교회종탑국기계양대,銅像등이 있어 자기가 사는곳을 남들에게 소개하기 쉽고 또한 그런 유명한 상징물주변에 사는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길 원하며
- 5.건물주변에 빨간색이나 분홍색등 젊음을 나타내는 색상의 건물이나 조형물이 있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인들 역시 위에 소개한 선진국 노인들처럼 주변의 미적영역에 대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있으며 자기가 살고있는 집이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집처럼 보이고 울창한 자연경관이 있고 보기좋은 위험물이 제거되어 말 그대로 "나의 집"이기를 바란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라고 하겠다.

<표 5> 미적측면에 관한 욕구

번호	욕구내용	중복 응답수(%) n=6	동의점수 평균 ± S.D. N=19
1	주위에 젊은 사람들 다니는게 보이길 원함	6(100.0)	4.8 ± 0.2
2	현재의 집이 가정집처럼 보이기를 원함	6(100.0)	3.6 ± 0.4
3	집앞에 큰 나무가 울창하기를 원함	6(100.0)	4.6 ± 0.7
4	이웃세대와 마주보고 있기를 원함	5(83.3)	..
5	주변에 전봇대가 없기를 원함(위험해 보이므로)	4(66.7)	3.1 ± 0.7
6	정원에 꽃이 많이 피기를 원함	4(66.7)	4.2 ± 0.3
7	집주위에 우물이나 실개울이 있기를 원함	4(66.7)	3.2 ± 0.8
8	집주위에서 높은 산이 보이기를 원함	3(50.0)	..
9	집주위에 새들이 많이 날아오길 원함	3(50.0)	..
10	집이 높은데 있어 전망이 좋기를 원함	2(33.3)	..
11	창문을 열면 교회나 학교가 보이기를 원함	1(16.7)	..
총응답수 : 44			
1인당 평균 응답수 : 7.33			

\*\* : Reliability Gamma Value <0.5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평생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온 농촌노인들이 자영농장형 노인촌락에 입주하여 생활공간에 대해 느끼고있는 욕구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로서 분석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및 개선방안을 요약하고자한다.

- 1.입주자들은 청력저하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이 얇은 조립식 벽으로 되어있을경우 微聲이 벽을통해 전달되면서 극도의 소음공해에

노출된다. 따라서 노인 주거시설을 건설할때 벽돌이나 시멘트등의 强材를 사용하여 소음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 2.농촌 입지형 노인촌락의 경우 입주자들은 익숙한 생활에대한 애착심때문에 한옥스타일의 대청마루,가마솥이 달린 재래식 아궁이, 생활도구를 걸어놓을수 있도록 넓은 처마밑 공간을 선호한다. 따라서 노인촌락은 기존 농가부락에있는 한옥들을 구입한뒤 기존 구조옆에 증개축공사를 통하여 설립함으로써 현대식 생활공간에 살면서 필요시 재래식 생활 공간활용기회를 제공하는등의 절충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 3.입주자들은 대도시 가정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집단유통망을 구성하는데 그 독특한 생활양식으로인해 도시인과의 유대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외부인의 방문과 교류가 입주자들에게 보다 자랑스럽고 명실상부하게 느껴지도록 집단농장내에 몇몇세대가 공유할수있는 라운지나 사교공간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 4.한개의 주거단위에 방이 따로 구분되지않고 침실,주방,거실 겸용 개방공간이 입주자에게 별다른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는데 이는 개방된 공간이 위압시 주위사람과의 접촉을 쉽게 만들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때문이다.따라서 노인촌락 공간구성시 방마다 따로 벽을 설치하는등 외국에서 선호되는 사생활보호우선의 방침이 한국형 노인촌락에 행복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되며 도시노인들에게도 개방형 공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뒤 도시/농촌 노인을 구분한 생활공간 구성을 디자인기법에 반영해야 할것이다.
- 5.입주자들은 이들 주거공간의 외형이 수용소나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되기를 열망하는데 이것은 주거공간이 영구구조물일경우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거만족을 상승시키고, 자녀및 친구의 방문시 집단농장형 노인촌락은 제2의 가정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인간적 유대가 강한 농촌형 촌락은 그 초기 설립단계부터 일반 가정을 개조해서 만드는등 일반가정생활의 생활공간구조를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입주자들이 갑작스런 심리적 충격없이 집단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할것이다.
- 6.미국 노인촌락의 조사(Pyonos,1993)에서 나타나는 주거공간 변경에 대한 욕구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전통적인 주거문화적 차이로서, 미국인은 노후에 스스로 주거공간의 일부를 끊임없이 변경,수정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주거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역동성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은 공간의 영속성에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농촌노인을위한 노인촌락 설립에있어서는 공간구성을 입주자 스스로 자유롭게 변경하지 않는 영구구조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할것이다.
- 7.시설주변 울창한 나무,숲,개울,야생동물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교회, 학교등 문화시설의 인접이 시각적 매력성으로 인식되기에, 시설설립시 정서순화를 향상시키는 쾌적한 환경특성이 최대한 디자인에 반영해야 할것이다.
- 8.자영농업 중심의 노인촌락은 농작물을 집안에 들여놓는 일상생활

습관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확대개폐가 가능한 2단식 출입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9. Grab bar는 그 인식부족으로 인해 즉시 원하는 않지만 화장실 바닥에서의 미끄럼 위험이 확인되었는바, 2개의 grab bar 혹은 미끄러질때 잡을수있는 기둥이 좌변기 양옆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농장형 촌락 디자인을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질것을 제안한다.

첫째, 장차 노인촌락이 대규모로 형성되는 단계가 되면 입주자의 디자인 욕구에대해 남녀별, 도시및 농촌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의 구분된 연구를 하여 독신노인형, 부부노인형, 도시형, 농촌형, 고학력 노인용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노인촌락 주거시설은 획일적인 구조, 특히 똑같은 구조가 일렬로 연결되는 형태를 지양하고 주거단위가 서로 마주보며 사교성과 집단생활능력을 높이도록 군집형태가 정해져야하며, 그러한 군집형태에서의 공간디자인 기법에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전통가옥 특성을 반영하는 노인촌락 주거공간을 구성할경우, 전통 가옥구조 못지않게 전통가옥에서 사용되는 생활도구들(예: 가마솥, 장롱, 병풍등)이 실내디자인에 반영되기위한 복합적 연구가 이루어 질것을 제안한다.

- American Journal of Gerontology 40(2), 1985
22. M.Mindel, Multigenerational family households,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he Gerontologist, 19, 1979
  23. E.W.Morris and M.Winter, A Note on the Microsociology of Housing. Iowa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aper, J-11486 Ames, Iowa, U.S.A. 1985
  24. Lee, I.S, A Longitudinal Model of Housing Determinants in Oaxaca, Mexico. Ph.D.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Iowa, 1990
  25. A.Murphy, Studying Housing Areas in a Developing Nation: Lessons from Oaxaca, Mexico. Housing and Society 14(2), 1987
  26. P.Oliver, The Dwelling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5
  27. J.Pynoos et al, Housing the Aged, Elsevier Press, London.
  28.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Annual Reports on the Management, Series 2.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Wheaton, MD, U.S.A. 1994
  29. R.Somers and N.Spears, The Continuing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92

〈접수 : 1997. 12. 26〉

## 참고문헌

1.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1994
2. 김태현, 서승희,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7(2), 1987
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4
4. 신한종합연구소, 21세기 실버산업의 전망, 성림문화사, 1991
5. 원영희, 등. 별거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5(2), 1995
6. 이연숙, 노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 경춘사, 1998
7.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8. 이인수, 장기보호시설의 개발에관한 연구(1), 한국노년학회지 16(1), 1996
9. 이인수, 장기보호시설의 개발에관한 연구(2), 한국노년학회지 16(2), 1996
10. 이인수, 노인주거와 실버산업, 도서출판 하우, 1997
11. 이인수, 노인의주거성향에관한 고찰, 한국노년학회지 17(1), 1997
12. 조소영 · 이창석 · 김경호, 노인시설관리론, 학문사, 1998
13. 최인호 · 홍승재, 전통주택의 다락에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2), 1997
14. 한서대학교, 자매결연사업에관한 보고서, 1997
15. 한서대 학생생활연구소, 학교주변 재래농가의 소멸과정에관한 보고서, 미출판된 내부 연구보고서내용 인용, 1998
16. R.C. Atchley, Social Forces in Later Life. Wadsworth Publishing Co. CA, U.S.A. 1988
17. Earl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Publishing Co. Belmont, California. 1986
18. Beverly Enterprise, Annual Reports on Care Facility Management, 1998
19. E.M.Crimmins, "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Research on Aging, 2(1), 1990
20. C.Goldschneider,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Older Population: Constraints, Preferences, and Power,"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Westview Publication Co., New York, U.S.A. 1989
21. A.J. Greca et al, Retirement Communities and Their Life Stages,